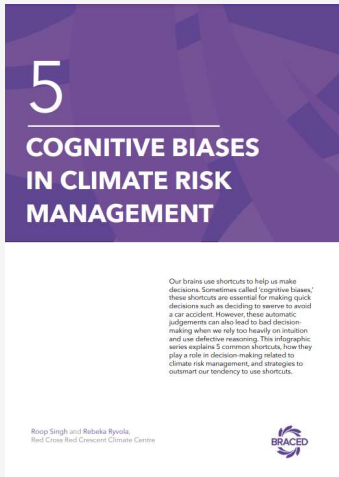


기후 리스크 관리의 인지 편향

K-Risk 발간편집 위원회

K-Risk



목차

- 1. 계획상의 오류 (봄호)
- 2. 투입 휴리스틱 (여름호)
- 3. 가용성 휴리스틱 (겨울호)
- 4. 낙관주의 편향
- 5. 단일행동편향

※ 본 기사는 좌측 문헌의 단순 번역기사로서 K-Risk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상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가용성 휴리스틱

"1997년 대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은 우리가 어떤 사건의 과거의 예를 얼마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사건의 빈도를 추측하는 사고의 지름길(mental shortcut)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생하고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은 특히 널리 알려진 경우 더 중요하게 기억된다. 이는 리스크 인식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게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뉴스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리스크보다는 미디어에서 생생하게 다루어지는 잘못된 리스크를 더 걱정한다.

동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997-1998년 엘니뇨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다. 사람들의 집과 생계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1997-1998년 엘니뇨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잠재적인 엘니뇨가 예측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동일한 영향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엘니뇨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강우량이 많아지면 일부 건조한 지역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인해 사람들과 정부는 실제 인지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가용성 휴리스틱은 특히 리스크 인식 왜곡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미래의 극한 기상 현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후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겪은 마지막 태풍에 대해 쉽게 기억해낼 수 없는 경우 대피 가능성이 적다. 2008년 텍사스에서 2등급(Category 2)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대피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113명이 사망하고 38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직 전체에서 보면 이러한 사고의 지름길은 기후 적응 프로젝트가 어떤 리스크에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작용할 수도 있다.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억에 기반한 평가는 현재와 미래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대신 의도치 않게 최근 사건에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기억이나 설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기후 리스크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종종 국가 기상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 보고서에는 지역 규모에서 미래에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 게다가, 극한의 사건을 다루는 연구는 특정 극한 사건의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극한 사건의 실제 빈도를 알아보고, 그 빈도가 기후 변화의 결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